

영광군 e-모빌리티 기업, 2022 하노이 한류박람회 참가

동남아시아 시장 판로 개척 위한 홍보 개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2 하노이 한류박람회'에 영광 e-모빌리티 기업들이 참여해 관내에서 생산된 e-모빌리티 제품을 홍보했다.

이번 한류박람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정부 5개 부처 및 5개 기관이 개최했으며 K팝 등 한류 이벤트와 연계해 소비재를 비롯해

의료·교육·환경 분야의 한국 기업 136곳이 참여해 동남아 11개국의 300여 개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하노이 한류박람회에 초소형전기차 CEVO-C를 생산하는 세보모빌리티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전기이륜차·삼륜차 생산 전문업체인 쉼에이치비, 고성능 강관 등을 생산하고 있는 쉼하나스틸이 참여해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해 주력 생산 상품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했다. 또한, 영광에 투자를 계획 중인 쉼유테크, 마스터자동차 역시 고사양, 고품질의 제품을 전시했다.

관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주관한 e-모빌리티 전시관에는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업인 쉼세보모빌리티와 마스터자동차는 각각 주력 차량인 CEVO-C 전시와 마스터전기차(화물) 전시를 통해 제품을 홍보했

으며, 쉼에이치비에서는 작물 운반용 전기삼륜차를 베트남 중북부 농업과학원에 기증하는 협약식을 개최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지가 많아 막대한 농기계 수요를 가진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마산단에 부지매입 후 투자를 계획 중인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생산기업 쉼유테크 역시 고사양의 전기자전거 제품을 전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경률 기자

화순군-광주시-전남도, 동북댐 관련 협약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동북댐 현안 해소와 시·도간 상생발전을 위해 최근 동북댐에서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동북댐 수질개선 및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화순군·광주시·전남도는 ▲화순군 이서면 적벽 초소에서 망향정까지(화순적벽 탐방로 등)는 화순군에서, 그 외 지역은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재원은 댐 관리청인 광주광역시가 총사업비 233억 중 210억(90%)을 10년간 분할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동북댐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고 댐 관리청은 광주광역시에 있어 동북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제한, 동북댐 관리권으로 마찰이 많았다.

화순군은 '동북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권 환원 및 적벽 되찾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광주시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협약 체결로 동북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적벽 탐방로 상시 개방과 광주시의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 지원이 합의돼 동북댐 관련 50년 묵은 시·도간 갈등 해소와 주민의 자존감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지난 7월 28일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원회에서 협력과제의 하나로 화순 동북댐의 낙후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양 시·도가 정비사업 추진이 채택되면서 급물살을 타 안전별 세부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남호경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가 최근 이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 국회의원들을 만나 현안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군수는 첫째날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예결위원장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윤영덕,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보좌관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신속 추진 ▲청령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 지원 ▲장성호 수변 데크길, 출렁다리 설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서 둘째날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만나 노후된 백양사 숙박단지에 쉼터,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백양사 숙박단지 관광자원화 사업' 국

비 지원을 요청했다.

장성군은 전남도, 질병관리청과 공동협업체를 구성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신속 설립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김한중 군수는 내년 추가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청령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숲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과 황룡강을 연결하는 걷기길이다. 전남 대표 꽃강 황룡강과 필암서원, 박수량 백비를 소나무숲길로 이어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총사업비 60억 가운데 30억 0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장성호를 횡단하는 인도교 설치와 수변 데크길 연장 사업비 500억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유광중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 내년도 예산 확보 총력

김한중 장성군수가 최근 이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 국회의원들을 만나 현안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군수는 첫째날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예결위원장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윤영덕,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보좌관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신속 추진 ▲청령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 지원 ▲장성호 수변 데크길, 출렁다리 설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서 둘째날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만나 노후된 백양사 숙박단지에 쉼터,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백양사 숙박단지 관광자원화 사업' 국

비 지원을 요청했다.

장성군은 전남도, 질병관리청과 공동협업체를 구성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신속 설립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김한중 군수는 내년 추가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청령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숲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과 황룡강을 연결하는 걷기길이다. 전남 대표 꽃강 황룡강과 필암서원, 박수량 백비를 소나무숲길로 이어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총사업비 60억 가운데 30억 0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장성호를 횡단하는 인도교 설치와 수변 데크길 연장 사업비 500억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유광중 기자

담양군 담빛영화관 관람객 3만 명 돌파

지난해 문을 연 담양군의 작은영화관, '담빛영화관'이 개관 1년 만에 3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담양군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위치한 담빛영화관은 2D와 3D 입체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최신 영상장비를 갖춰, 전국 동시개봉 최신영화를 상영한다.

현재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서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과 학생, 군인 등 단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담빛영화관은 성인 6천원,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은 5천원으로 일반영화관에 비해 절반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예매는 홈페이지(<https://olcinema.co.kr>) 또는 현장에서 가능하다.

한편 담양군에서는 더 많은 지역민의 영화 관람 및 영화상영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12개 읍·면에 디지털사이니지(홍보디스플레이)를 설치 예정으로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성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8회 잡(JOB) 페스티벌 일자리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잡 페스티벌 행사는 구인·구직자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현장면접', '취업특강', '1:1취업 컨설팅',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제8회 일자리 페스티벌 성료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8회 잡(JOB) 페스티벌 일자리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잡 페스티벌 행사는 구인·구직자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현장면접', '취업특강', '1:1취업 컨설팅',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며 고등학생부터 청년,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500여 명이

참여했다.

위더스, 남원터보원, 해능 등 관내 19개 업체는 현장에서 직접 채용관 부스를 운영, 채용 담당자와 구직자의 현장 면접을 실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현장 면접에는 총 69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중 16명이 채용됐으며 45명이 추후 2차 면접을 통해 취업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한전KPS·한전KDN·전력거래소는 현직자의 공공기관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 부스를, 전남테크노파크·녹색에너지연구원·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국립목포대학교에서도 기관별 사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참여자 280여 명에게 취업 컨설팅을 제공했다.

/김동철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